

협동수업에 대한 도전

학교 교육과정에서 도서관 교육은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측면에서 방법적 지식과 사고 능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필요한 범교과적 학습 능력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성격이 교과 교육 과정은 물론 학생 일상생활과의 부단한 연계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점이다. 즉 학교도서관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내에 학교도서관 중심의 교육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정보화와 순회 사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자원 봉사자 확산, 다양한 형태의 업

무 대행 서비스 그리고 담당교사의 도서관 운영 연수 확대 속에서 자료 조직과 운영의 일부 분은 영역 보편성을 띠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중심의 교육 공동체 구성은 도서관 활용수업으로 대표되는 교과의 자원기반학습과의 연계성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개발 책임자로 참여하여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일선 학교에 보급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동수업용 장학 자료집의 주요 내용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동수업이 사서교사에게 주는 가치

사서교사의 협동수업 참여는 무엇보다도 동료 교사에게 학교도서관을 학교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또한 사서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자료의 관리자가 아니라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업 컨설턴트나 교육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협동수업 현황

그러나 도서관활성화 관련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도서관활용수업을 수업의 '설계-운영-평가'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사서교사의 수업 참여 수준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과 학습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선정하고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교과의 단독 시간표 운영에 참여하여 정보접근과 정보종합 중심의 정보활용능력 일부를 지도하는 보조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 수행 정도와 활성화에 대한 인식

장학자료집 개발 과정에서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도서관활용수업(자원기반학습)에 참여하는 사서교사 72명 중 63명(87.5%)은 교육적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서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적 역할 수행이 곤란한 가장 큰 원인을 '교과교사(담임교사)의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협동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31.6%)'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정시간표 운영에 따른 사서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 참여 기회 부족(21.2%)' 과 '사서교사 본인의 도서관활용수업이나 협동수업에 대한 인식 부족(16.1%)' 을 주요 원

인으로 꼽았다. 사서교사들은 교과교사와 교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교과서의 도서관활용수업을 일정 시간 의무화하는 방안(25.4%)'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협동수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협동수업 장학 자료집의 개발 방향

따라서 협동수업 장학 자료집은 우선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정보활용능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설정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게 안내하고, 학교 급별로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기술을 설정함으로써 협동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정보활용능력을 학습주제에 연계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하고, 고정시간표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통 학습주제를 활용한 교과 간 다양한 연계 사례를 제공하고 수업 설계와 평가 단계에서 협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해외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서 협동수업의 발전 단계를 '협조-협력-협동' 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설정함으로써 협동수업의 점진적 적용과 발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협동수업은 수업 자료 제공과 같은 단순한 협력 단계를 거쳐 학습주제와 정보활용능력의 일부를 연계 지도하는 협력 단계로 발전한다. 그리고 학습주제와 방법적 지식인 정보활용능력이 통합 운영되는 협동 수준으로 발전한다.

협동수업 설계 절차

협동수업 초대하기

협동수업 설계 과정에서 사서교사가 몇 학년이 언제 어떤 학습주제를 배우는지 알고 있고, 교과교사가 정보활용능력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손쉬운 공동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사서교사는 협동수업에 참여하는 교과교사의 수업방법, 개인적 성향 그리고 협동의 수준 등에 대한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과교사에게 학습주제나 학습자료 그리고 수업일시와 장소, 수업에서의 역할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초대장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학습상황 기록

초대장 발송을 통해서 협동수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 희망 교사를 파악한 후에는 협동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상황, 협동수업을 실시한 배경, 협동수업을 준비한 과정 및 내용,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내용, 도서관의 형편 그리고 협동수업 설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대처 방안 등을 정리한다. 이러한 학습상황은 협동수업의 배경과 준비 과정 등을 학교와 도서관 형편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교사 간 관계형성에 실마리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사 간 '공동 설계-공동 수업-공동 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학습자료 선정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외 학습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 방법과 자료 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료 선정 작업과 함께 자료와 교과 학습주제와의 연계성, 수업 적용 방안 등을 기록한 교과 연계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이 목록 작성 단계에서 병행됨으로써 자료에 대한 지적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시간표 편성 및 학습 목표 기술

협동수업 초대 결과 개별교과가 독립 학습주제를 가지고 도서관활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유사한 학습주제를 가진 2개 이상의 교과교사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장학자료집에서는 협동수업의 유형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1:1 협동이 이루어지는 교과 독립형과 사서교사와 다수의 교과교사가 협동하는 교과 연계형으로 나누어 학교 급별로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시간표 편성을 마치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길러질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이 교과외 학습목표와 지식·기능·인성 측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공통의 학습목표를 기술한다.

학습모형 선정

협동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의 자주적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자주적 학습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조사, 탐사, 견학, 실험, 체험 등을 실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활용수업에 협동학습을 적용할 경우 학생 상호 간에 학습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와 학습주제를 연계하는 학습 방법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공동 수업

공동 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수업시간에 꼭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서교사는 정보기술의 지도와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교과교사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도와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공동 수업은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 완성된다. 즉 교과 수업과정의 일부로써 정보활용능력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과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문제해결모형이 꼭 필요하다. 또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계획되는 것이 학습능력 신장에 효과적일

다. 이를 위해서는 전교사가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학습주제와의 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 평가

협동수업 평가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시험이나 지필고사를 통해서 학업성취도 향상의 증거를 찾기 보다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체크리스트는 누가 좀 더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고, 누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누가 뒤쳐져 있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 방법이다. 장학 자료집에서는 학생 스스로 정보활용능력과 과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픽 조직자를 적용한 자기 평가표나 상호 평가표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협동수업의 활성화 방안

사서교사가 참여하는 협동수업은 제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제한 요소를 안고 있다. 사서교사들의 설문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도서관활용수업과 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852호) 제15조에서는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학교보건법」(법률 제9847호) 제9조의 2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보건교육을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협동수업의 현실적인 제한 요소는 교과 교실제와 특별실 운영에 따른 자료의 분산 관리, 수업용 독립 공간 미확보에 따른 도서관 이용 제한 그리고 사서교사의 마케팅 전략 및 교육과정 설계 능력 부족, 학교장과 동료교사들의 인식 부족 등이다.

변화에는 늘 도전이 있기 마련이다. 협동수업은 사서교사에게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학교 교육과정에 온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더 이상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다가서기 위한 도전이다. 장학자료집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이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시행착오에 숨죽이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에서 배우는 기쁨 아는 즐거움」.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송기호. 2010. “도서관활용수업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동수업 향상을 위한 교수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111-127.

송기호. 2011.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범 교육과정으로서의 정보 활용 능력 위상 강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29-50.

글 | 송기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 전공 전임강사
gih07@dreamwiz.com

